

장터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희망

6년 간의 장터생활 소설로 엮어

1980년대부터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라벨인쇄, 실크스크린인쇄를 비롯해 그라비아 인쇄업체를 운영한 바 있는 배민호씨가 최근, 장돌뱅이의 삶과 애환을 담은 소설 '길이 있어 거상이 간다' (상하 2권)를 출간했다.

배씨는 1981년 등단한 후 1983년 월간문학 시조부문 신인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시조문학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사업활동과 장터에서의 바쁜 생활에 얽매어 집필활동을 중단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소설로 작품 활동을 재개한 배씨는 지난해에 소설 '등대뿔'로 계간 '생각과 느낌'과 '월간문학'의 신인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쥐기도 했다.

그리 친근하지는 않으며 오래된 소설에나 등장할 듯한 낱말, '장돌뱅이'. 그러나 21세기에도 그들의 숨결은 끈질기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끈질긴 만큼 거칠고 거친 것이 그들의 삶이다. 배씨는 이러한 장돌뱅이의 눈물과 한숨과 웃음을 특별한 기교 없이 엮어낸 실화소설 '길이 있어 거상이 간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 책에는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낭만적인 장돌뱅이는 보이지 않는다. 달과 구름이 흐르고 메밀이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찾기도 어렵다.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귀향선물로 장만하기 위해 만지작거리며 기쁨에 들떠있는 손님과 장돌뱅이간에 오가는 장터감상에 기대어 있지도 않다.

이 글에 나타나는 장돌뱅이는 오직 고단하기만 한 삶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갈 뿐이다. 그 속에 흐르는 눈물은 피가 되고 한숨은 추운 겨울날의 바람으로 남는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여우비 속에서 잠깐 내비치는 해처럼 웃음 한 자락 털어낼

줄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배씨가 이번에 출간한 '길이 있어 거상이 간다'는 IMF 한파로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실의에 빠져 있을 당시 우연히 발을 들여놓게 된 장터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6년 동안의 이야기를 엮은 실화소설이다.

장돌뱅이의 잠들지 않는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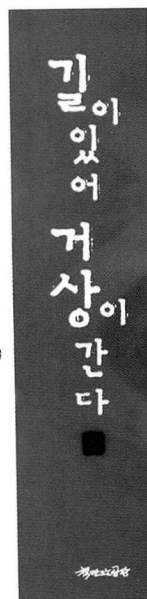
배씨가 장터에서 만난 장돌뱅이들은 저마다 사연을 안고 있다. 배씨처럼 부정수표법 위반으로 기소 중지자가 되어 숨을 곳을 찾아 들어온 준범법자, 자신이 거둔 농산물을 제값 받기 위해 들고 나온 농사꾼,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계를 위해 힘겨운 행사장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온 유명 가수의 부인 등등이 장터의 주인이고 배씨의 이야기 소재이다.

말로 쓰는 작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글의 소재가 되는 이들과 함께 해온 생활을 반영한 이 글은 실화소설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배씨는 장돌뱅이의 삶을 독자의 독서공간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

배씨는 그들의 주먹 속에는 질퍽한 눈물뿐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웃음이 떠나질 않고 있는데 이것이 장돌뱅이의 잠들지 않는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배씨는 이러한 장돌뱅이의 잠들지 않는 꿈을 특히 강조한다. 장돌뱅이가 꿈속에서도 인생의 내밀한 대박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들 때에도 잠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중의 한가운데에서 장돌뱅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이다.



“봄빛이 완연해졌다. 앞산의 신록이 푸르고 이제 뒷산도 머잖아
소록 물로 짙어질 것이다.

음지에서 드문드문 잔설처럼 웅크리고 앉아 재기를 꿈꾸는 장꾼들에게도
희망의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 드리며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자 한다”

- 작가의 말 중에서

IMF 환란시 인쇄업 접고 장터로

배씨가 경영하던 인쇄업체는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가 났다. 좌절과 패배 의식에 젖어 쓰라린 고통을 감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시점에서 그냥 방향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배씨가 장터에 가게 된 동기이다.

우연찮은 기회에 접어들게 된 장터 장돌뱅이의 세계 속에서 배씨는 하루하루 삶과 투쟁하는 민초들의 생활을 배우게 된다. 전국의 장터를 안방삼아 떠도는 장꾼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배씨는 이들간의 의리와 모사, 배반과 우정, 사랑과 시기는 물론 그들의 궁핍한 삶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그들 중엔 재기에 성공해 사회로 돌아가는 장돌뱅이들도 여럿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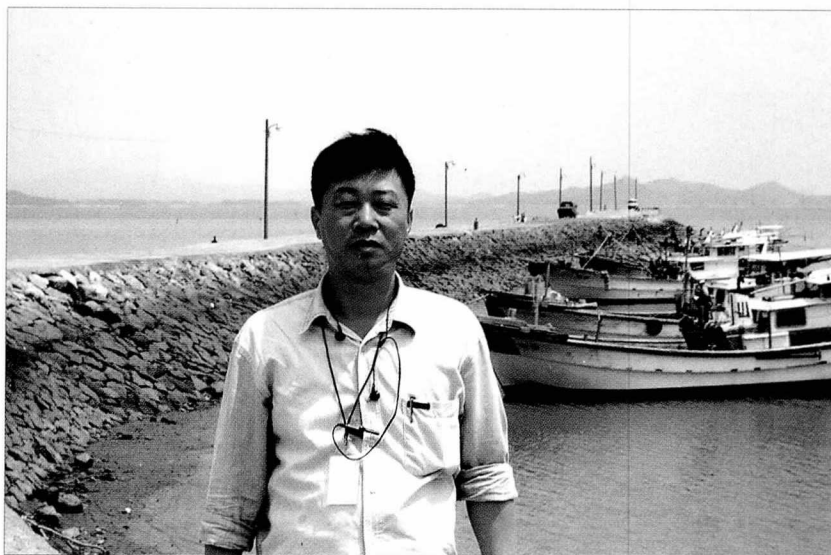
장터에 들어오기 전 좋은 대우를 받았거나 사업을 할 때 여러 식솔들을 거느렸다는 예전의 기억은 배씨에게는 아련한 과거였다. 모든 그림의 밑바탕이 흰색인 것처럼 장돌뱅이의 세계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는 배씨는 마음을 빈 여백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장터에서도 또다시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돌뱅이들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배씨는 누군가는 시대의 아픔을 삭이는 그 현장을 기록으로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장꾼 모습에서 희망 찾았으면

화려한 여성잡지의 창간호 특별부록처럼 축제 행사장을 부초와 같이 떠다니는 장돌뱅이들은 행사장 주위에 텐트를 치고 전을 편다.

쫓겨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으며 타협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주먹패들을 장꾼들의 끈질긴 단합으로



맞서 싸워 물리쳐야 할 때도 있다.

배씨가 팀장 완장을 차고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나 지방의 축제 행사장을 비롯해 야시장 행사를 참여한 횟수는 약 200여 회에 이른다. 그동안 전국 최고의 장터에서 대박을 터트리기도 했으며 일전 한푼 없이 야반도주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생활의 기억을 배씨는 문학적인 허세나 미사여구보다는 장터 자체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장터 속, 살얼음판 같은 인생의 기로에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구치소로 들어간 이도 적지 않았지만 대박의 행운을 옹이처럼 부여잡고 새 삶의 터전으로 나선 이도 많았다는 것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배씨가 발견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있는 장돌뱅이들이다.

배씨는 혹시 삶의 무상함이나 현실의 비통함에 억눌려 있는 독자가 오뚝이처럼 일어서는 장돌뱅이들의 세계를 봄으로써 희망을 되찾는데 일말의 도움이라도 얻게 되는 것이 책의 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보람이라고 여기고 있다.

“길이 있어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화 소설이라고 들었는데, 소재와 주인공은

이 소설은 내가 6년간 전국 도처를 떠돌며 가진 장꾼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체험적인 실화를 토대로 발간한 것으로 장터는 각 지방의 이벤트 기획 축제의 장이고, 동가식서기숙으로 떠도는 장꾼은 장돌뱅이의 대명사로 각각 소재와 주인공이 된다.

실화를 선호하는 걸로 아는데, 추구하는 작품 세계는

장터를 떠돌며 인생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꼈고 자살하려고도 했지만 '절망의 끝은 희망이다'라는 말이 떠올라 새 삶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장돌뱅이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 이 시대의 뒤안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소설가의 꿈을 갖게 되었고 작년에 '등대뿔'이란 단편소설로 또 다른 장르로 등단했다. 앞으로의 작품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의 부대감을 바탕으로 소설을 쓸 계획이다.

인쇄업체를 경영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1981년에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지만 몇 번의 좌절을 맞보았다. 그러면서 차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직업의식을 갖게 된 것은 인쇄사의 영업부장으로 출발한 뒤부터다. 부지런히 뛰어다녔고, 그래서 영업부장으로 출발한 인쇄사를 인수받게

되었다. 처음엔 라벨 인쇄와 실크스크린 인쇄업과 출판업으로 출발하였다.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생산 공장의 TAG(꼬리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후에 그라비아 인쇄공장을 차려서 88년부터 운영했다. 사업이 확장됨으로 인해 종업원도 늘었고 수익 또한 늘었지만 IMF때 모든 것이 물거품됐다.

업체 경영시 재밌는 일화가 있다면

포철 박태준 회장이 신일본제철을 방문했을 때 공장장과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일본 공장장이 자사 제품이라며 새로운 명함을 건넸다고 한다. 박회장은 니켈 도금으로 된 명판에 실크로 인쇄된 명함을 갖고 있었는데 공장장의 명함은 하얀 종이 같은 것이었다. 신기한 이 명함을 비서진에게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얇은 '박판'의 생산공정이 없어 이 명함을 만들기 위해 박물개발 연구 추진반이라는 계가 하나 생겨났다. 기술연구소에서 명함 제작용 코일을 가져가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 트레이러에 싣고 다니는 어머머한 코일 덩어리가 놓여져 있었다. 바삭 마른 낙엽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구겨져 버릴 것 같아 호이스트에 걸어놓고 가위로 잘라 다시 복사용 재단기로 조심스럽게 벽화를 떼내듯 재료를 가져와야 했다. 한 달 반 동안 무광의 흰 종이를 만들어 내는데 열처리가 문제였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중고 냉장고를 사와서 아래에 열선을 깔아 시간을 두고 구워냈다. 열처리 온도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노릿노릿한 색깔로 변해서 안타깝게 한 일도 많았다.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 뿌듯함이 아직도 느껴진다.

인쇄업을 경험하며 느낀 점은

대부분의 인쇄업체들은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서로 치열한 주주 경쟁을 하는 바람에 적자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해결돼야 한다. 기술자 고용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인쇄단체에서 견습생 배출에 더욱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사업정리 후 장터로 간 이유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단지 목숨만 살아있지 도무지 무얼 해야 할지 많이 캄캄했다. 몇 달 동안 술병만 안고 살았다. 아내가 식당 파출부 일을 함으로써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으며 달리 다른 일을 해 볼 엄두조차 내질 못했다. 아내가 먼저 장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장터에서 장꾼이 됐다.

6년이면 장터에서 배운 것도 많을 텐데

우리 시대 마지막 보부상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장돌뱅이 세계를 알았다. 싫든 좋든 간에 장꾼들을 절대 적으로 만들면 안되고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실감났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철저히 통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특산물을 유통하는 단계부터 배웠으며 자금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유통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신념이 있다면

가훈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노력하면 결국 희망이 찾아올 것이며 비록 오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하늘에 운명을 맡기지는 생각이다. 희망이란 마치 땅의 길과도 같다. 길이 있으므로 해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절망의 끝은 희망이다.

작가 혹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언젠가는 장터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꾼들의 세계를 다 들여다보지 못했다. 또 다른 각도의 장돌뱅이 세계를 그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판업에 뛰어든 것이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 찬 잡지를 만들고 싶다.

덧붙일 말이 있다면

인생은 동전 양면과도 같다. 언제 어디서건 희망과 절망은 동시에 부대끼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용기는 역경에 처했을 때 빛이 된다. 희망이 도망치더라도 용기를 놓쳐선 안 된다.

〈조갑준기자〉